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6월 28일(주일) 제1055호

“나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



2015 카운트다운 집회.

마리아행전 막 내려

2,400명 참석...뜨거운 기도열전

2015 마리아행전 ‘하나님의 소원’이 막을 내렸다. 지난 23~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마리아행전 ‘하나님의 소원’에는 2400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3일 동안 순백의 마리아들은 나를 향한 소원, 교회를 향한 소원, 열방을 향한 소원을 기도제목으로 내놓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강사들의 주옥같은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덕주 교수(감리교 신학대)는 “마리아를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 없다”고 했고, 이정아 사모(물푸레나무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양떼를 먹이는 밥상공동체를 회복하자”고 권면했다. 박은조 목사는 “교회와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천종호 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재훈 목사는 순백의 마리아들을 기도의 어머니로 초대했고, 하광민 목사(생명나래교회)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마리아행전 마지막 날에는 탈북민 강디모데 형제가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후대에 생명을 전할 사명이 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울렸다.

마리아행전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여성기도부흥운동이다. 주중에도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문의: 서빙고 02-3215-3227, 양재 02-570-7277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청년 3천 명 운집 오늘 오후 2시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주일연합예배’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의 열기가 뜨겁다. 오늘(28일)은 무대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장충실내체육관으로 옮긴다. 오늘 오후 2시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주일연합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박종길 목사가 설교한다.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간과 아웃리치 발대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지난 26일 막 올랐다. 찬양, 기도, 예배를 갈망하는 청년 3천 명이 운집해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가 될 것을 다

집했다.

26일과 27일에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첫날은 예배(Worship), 둘째 날은 선교(Mission)가 주제였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 본부장),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손창남 선교사(OMF 선교사), 김해영 선교사(케나선교사), 유병국 선교사(WECC국제선교동원) 등이 강의했다. 이들 동안 열린 저녁집회에는 청년 3천 명이 참석해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함을 가득 채웠

다.

이번 카운트다운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3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심성의껏 섬겼다. 또한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한 청년들의 연합새벽기도회도 개최되었다. 청년들의 헌신, 섬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카운트다운 집회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내일부터 건강한 교회 세미나 29~30일 양재 온누리교회

건강한 교회 세미나가 드디어 내일(29일) 막 오른다.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외부 목회자, 사모, 교회 리더 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와 지앤엠 글로벌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건강한 교회 세미나에서는 피터 스카지로와 제리 스카지로가 강연한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저자다.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ECPA) 골드 메달리언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 제리 스카지로는 남편과 함께 건강한 가정과 영성센터를 설립해 사역하고 있다.

문의: 02-3215-3532, 02-570-7447

“천군만마가 따로 없다”

온누리교회 최연소 교사 홍재화 형제 ... 올해 19살
꿈사랑부 찬양팀 교사, 17살부터 섬겨 벌써 3년차

서빙고 꿈사랑부 홍재화 교사는 온누리교회 최연소 교사일 것이다. 그가 처음 교회학 교 교사 제안을 받은 것은 17세 때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꿈사랑부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벌써 3년차 교사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가장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다. 지난 25일 그를 만나 꿈사랑부 교사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들어보았다.



투블럭에 포마드한 머리, 세미 힙합 스타일로 멋지게 차려입은 그가 들어섰다. 오늘 만날 홍재화 교사다. 누가 봐도 젊고, 열정 넘치는 청년이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실제 나이를 의심했다. 19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하고 신중했다. 수줍음이 많다는 그는 ‘꿈사랑부’ 이야기가 나오자 함박웃음을 보였다.

“5초 당숙이 사랑부 교사로 10년 넘게 섬기셨어요. 그분이 제게 사랑부 교사 제안을 하셨죠. 당시 사랑부와 꿈사랑부가 분리될 때였는데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2013년 10월부터 꿈사랑부 찬양팀 교사로 섬겼다. 당시 17살이었다. 교사 제안을 받고 ‘내가 학생인데 교사로 섬겨도 되나’ 싶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고민이 되었지만 장애인 부서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쉽사리 거절할 수도 없었다.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조심스럽게 꿈사랑부의 문을 두드렸다.

나이 어린 성도가 교사로 섬기겠다고 했을 때 꿈사랑부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상 밖이었다. 꿈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송지은 전도사(꿈사랑부 담당)가 그를 격하게 환영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찬양팀 교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역을 내려놓는 바람에 클래식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의 등장은 천군만마가 따로 없었다. 홍재화 교사는 그날부터 꿈사랑부 찬양인도자로 섬기게 되었다.

나에게 큰 감동을 준 우림이

그는 장애인부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꿈사랑부는 귀한 인연을 선물했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들을 지켜볼 때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사랑부에 갔을 때는 많이 놀랐죠.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어요.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예배드릴 때 옆 사람을 신경 쓰곤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도전이 되었어요. 바로 그 모습이 꿈사랑부 아이들의 예배고, 찬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꿈사랑부에서 만난 한 아이에게 큰 감동을 받은 적도 있다. 지금은 사랑부로 진학한 우림이 때문이었다.

어느 날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하고

독려하는 멘트를 해야 했다. 그날따라 긴장이 되어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림이가 무대로 나왔다. 우림이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라”고 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우림이를 보고 많은 교사들이 놀랐다. 그는 그날 우림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수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않았다. 부서에 적응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꿈사랑부의 따뜻한 분위기에 매료돼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가 꿈사랑부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교사가 9살 연상이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에게 꿈사랑부 교사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다들 저를 격려해주셨어요. 날마다 저에게 귀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사랑부를 섬기면서 감정고시도 통과했어요. 지금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가 꿈사랑부에서 사랑 받는 이유가 또 있다. 다른 사람보다 시간 활용이 용이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의 가족들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온다는 점이다. 홍재화 교사의 어머니는 서빙고 2부 성가대, 4살 많은 형은 서빙고 1부 예배 찬버팀으로 섬기고 있다. 그는 매 주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1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꿈사랑부 예배실로 향한다. 일찍 가서 예배 준비를 하려는 것이다. 매주 의자를 세팅하고 자리를 정리한다. 지난해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수범했다. 묵묵하게 섬기는 그의 모습이 꿈사랑부에 귀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계기

그는 모태신앙이다. 어릴 때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당시에는 교회에만 다니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다 부모님의 제안으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중학교 1학년 때 양재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에 소속되었다. 그는 온누리교회에 와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사실 작은 교회에 익숙했던 그는 큰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

다. 앞진 데 덮친 격으로 친한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났다. 그도 교회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방황하던 와중에 접한 것이 클래식 악기였다. 비올라를 전공하던 형이 그에게 도움을 줬다. 형과 함께 서빙고 온누리교회 챔버팀에서 비올라 연주를 하게 되었다. 챔버팀으로 세 달 정도 섬기다가 꿈사랑부 교사제안을 받았다.

그는 꿈사랑부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고 한다. 꿈사랑부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 처음 꿈사랑부에 왔을 때는 교사 부족으로 인해 꿈사랑부 가족들과 함께 일 년 동안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도 했다.

“꿈사랑부는 제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었어요. 꿈사랑부 아이들을 보면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함께하는 교사들과 전도사님을 보면 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홍재화 교사의 바람은 한 가지다. 꿈사랑부 교사가 많아지는 것이다. 장애인 부서 특성상 자체들을 일대일로 돌보아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인데 꿈사랑부는 그 표어처럼 살고 싶은 성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꿈사랑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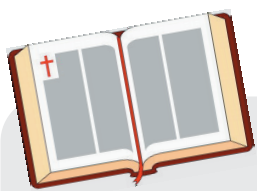
더욱 섬기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겸손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꿈사랑부 자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서빙고 꿈사랑부

6~13세 장애 아동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주일 오전 9시 신관 302호
문의: 정계희 팀장 010-7727-8347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요한일서 2:1~11

“내 마음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을 향하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두 사람 다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다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얇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성도도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

요한일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요일 5:1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안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2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3-5절).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14절).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21절).

요한일서에서는 왜 ‘안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어

려운 혼합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헬리어 ‘그노시스’는 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Knowledge’입니다. 지식, 알아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고,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혼합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요한일서는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켜주고,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모두 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는 지식과 체험하는 지식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지식이 쌓여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서서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렘 24:7).

정보로서 지식이 있고, 체험으로써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전 세계 어느 도시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로서 아는 지식과 그 땅을 걸으며 체험한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청교도는 이것을 사색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사색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순종과 대면함으로써 아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 있는 지식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은 다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머리의 지식, 정보로서의 지식, 경건의 모양으로써의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적인 지식, 실천을 통한 지식, 마음의 지식, 경건의 능력이 있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값없는 용서와 자백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증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1-2절).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맥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만 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지를 지켜보다가 죄를 짓는 순간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자백을 통한 용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9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용서해주십니다.

값없이 주는 용서가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용서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형벌을 가해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작품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값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 입에서 처음 나온

기도는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해 오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십자가를 끌고 갈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강도가 그 기도를 예수님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낙원에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값없는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하나님의 용서는 눈 감아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덮는 용서가 아닙니다.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한 공의로운 용서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과정은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죄를 지은 사람의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죄와 형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용서와 자백과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명령만 하는 부모는 절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부모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진짜 격려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보충수업을 시키는 제도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학업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모아서 보충수업을 했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충수업대상자로 분리되는 순간 실패자나 탈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3면에 계속)

통일을 준비하는 힘은

현실 직시, 이질감 극복, 하나님 중심 언약공동체 뿌리내려야 통일 가능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 ... 한국사회 개혁에 앞장 서야

호국보훈의 달 기획 '왜 복음통일인가'

1. 통일한국은 '21세기 동방의 예루살렘'
2. 독일의 통일 사례로 비춰본 우리나라의 통일준비
3. 탈북자가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의 실정'
4.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자세

호국보훈의 달 6월 한 달 동안 '왜 복음통일인가'를 주제로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복음통일의 당위성, 독일의 통일 사례에 비춰본 한반도의 통일준비, 탈북자가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의 실정을 보도했다. 이번 주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했다.

/ 편집자주



임성빈 교수(장신대)

통일은 한국인들 모두가 책임지고 실천하여야 할 21세기의 과제이다. 특히 통일은 신앙인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통일을 넘어 마음이 하나 되는 온전한 통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하고 평화로운 통일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로 상징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가능하다.

통일은 입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눈물 흘리며 부른다고 해도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민족감정 이상의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당위적 통일론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민족감정을 일깨워 통일 장정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민족적, 역사적 당위론은 곧 '남과 북은 매우 다르다'는 현실인식에 의해 주춤거리게 된다. 정치경제적인 현실적 문제에서 볼 때 통일은 멀어만 보인다. 통일로 가는 여정과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드는 통일비용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현실에 안주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회의론이 맹목적이고 한상적인 통일지상주의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은 분명한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과제는 감정에 의해 한 순간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면서 된다.

신앙적 과제로서의 통일: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실까?

통일준비는 매우 치밀하게 해야 한다. 감상적인 통일론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막대한 현실이며, 미래다. 그 막대한 현실과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엄청난 통일비용,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현실에 대한 좌절감, 통일 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체제 통합에 대한 부담감이 통일을 기피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성을 만든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는 통일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신앙적인 차원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충성이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신뢰와 충성의 절대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 사회문화적 안정, 정치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은 신앙적 자세가 아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 보이고, 미래가 암울해 보여도 종말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태도다.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신앙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물음이 있다. 과연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실까? 통일에 대한 신앙적, 신학적 당위성이 적절하게 응답될 때 신앙인으로

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형제자매끼리 불화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셨다(마 5:23-24).

지난 반 세기동안 우리 민족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서로 피 흘리면서 싸우고, 반목하며 살아왔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화해해야 한다.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온전한 화해의 통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분단이라는 지리적, 정신적 허리 잘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산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기회를 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난다(마 22:37-40, 요 13:34-35).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통일을 원하신다.

분단은 남과 북 양편 모두 정치경제적 부정의와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왜곡 현상을 유발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즉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발미로 정당화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통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분단으로 인해 찬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이데올로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이용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맥락이 보장되는 통일을 원하신다(요 4:24).

하나님은 만물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통일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예배와 직결된다(엡 2:4). 참된 영적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봐도 남과 북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분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마저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누가 나의 적인지를 살피고 생존을 모색하게 했다. 한국과 북한의 긴장 상황은 군비확장을 부추겨 동북아 지역 평화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평화에도 위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진정한 영적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세계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롬 12:1).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만물의 통일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신다'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실천적 과제

평화통일은 삶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 준비가 매우 구체적일수록 통일의 날은 가까워질 것이다. 통일준비의 구체성은 통일의 결실들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써 지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이질감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관과 민족관이 극복되어야 할 주요 결실들이자 과제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통일준비는 결림들 극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 수행에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무엇보다 교회는 한국사회를 통일공동체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 그 개혁의 우선 과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공동체가 뿌리내리게 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신앙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의 25%에 달하는 기독교 인구를 대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통일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손들임으로(자신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존재가치가 무한히 귀중하다는 사실에 기초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연약공동체다.

연약공동체는 어느 한 부분의 구성원들만에: 기독교인들, 남한사람들의 이익을 담보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대신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통일공동체는 국수주의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교회가 선포하고, 교육해야 할 통일공동체의 비전은 세계를 품는 역사적, 민족적 비전과 구성원들의 존엄성이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사회문화적인 이질감 극복

교회는 사회문화적인 이질감 극복에도 앞장 서야 한다.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북한바로알기'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문화교류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일학교 카리큘럼에 북한을 바로 알고, 북을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업적인 대중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 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에 편입된다는 것은 커다란 도덕적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북

한 사람들의 입장은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구매력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버린 소비주의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폐쇄적인 주체문화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한국교회로서는 2차적인 과제이다.

한국사회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이 정의롭게 조화되는 문화로 개혁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통일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문화 개혁에 목회적인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되어 게토(ghetto)화 되지 않도록 NGO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건전한 문화정착을 돕는 시민운동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독려해야 한다.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선명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단체들과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북한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건전한면서도 포용적인 문화를 한국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과 책임

통일은 백지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힘의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매우 역동적인 성격과 과제를 갖는다. 우리는 통일준비를 위하여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남과 북 중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역사나 문화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현실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은 평화통일이 낙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필자는 평화통일은 현실 인식과 신앙적인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통일에 신앙적인 차원이 요구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아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화통일은 과거의 잘못 용서, 상대방의 현실 받아들이기, 미래지향적인 소망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시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신앙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삶이다. 삶으로서의 신앙, 신앙으로서의 삶에 책임적이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동료 신앙인들로부터 시작해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형제자매는 바로 나의 형제자매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부과된 과제가 있다. 바로 사회개혁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남과 북 중 어느 누군가는 통일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통합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통일공동체에 걸맞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개혁 작업의 주체가 되면 좋겠다. 북을통일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한반도평화연구원/전우택 외/14,000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김정은을 죽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북한과 통일문제 앞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북한과 통일 문제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2013년 세 차례 가진 공개포럼 내용을 정리해 엮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은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목적으로 60여 명의 석학들로 모여 조직된 크리스천 싱크탱크다.

이 책은 9명의 영역별 전문가와 학자들이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 바라보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평화와 포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2015 마리아행전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소원

3일 동안 이어진 마리아 2,400명의 기도열전

“오 대한민국, 영광 할렐루야”

마리아들의 두 손에 태극기 들려있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열방을 위한 마리아들의 부르짖음은 처절할 정도로 간절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2015 마리아행전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한 마디로 하박국의 망대의 현장이다. 그만큼 기도열기가 뜨거웠다. 2,400명의 마리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소원을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개인적인 소원을 바라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했다.

3일 동안 여섯 가지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과 한국에 와있는 2만 8천명의 탈북자를 위한 기도가 뜨거웠다. 순백의 마리아들의 아름다운 기도열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도대체 예수가 누구데? 내 인생 삶에 나뭇가지로 던져진 예수”

“양떼를 먹이는 밥상공동체”

“양떼를 먹이라”

이정아 사모(물푸레나무 청소년센터)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집 나온 아이들과 함께 자고, 밥해먹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집 나온 청소년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다. 그녀와 동고동락하는 식구들이 50명이나 된다.

이정아 사모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은 등곳길이었다. 교문 한 귀퉁이에 파카를 입고 서 있던 한 여학생과의 만남이 시작이었다. 그 여학생은 아버지 양말을 무릎까지 올려 신고 있었다. 그 여학생은 딸이 다섯인 집에 넷째 딸이었다. 나머지 자매들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엄마는 늘 술에 취해 있고, 그 소녀의 네 번째 발가락은 잘려 있었다. 엄마가 학대한 흔적이었다. 도저히 그 소녀를 그냥 둘 수 없어 함께 등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부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부천 선한목자교회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교회(The Church of the Savior)를 모델로 지난 2008년 세워졌다.

이정아 사모는 청소년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한 가지라고 진단했다. 밥상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지고,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줄면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다. 대한민국 청소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정아 사모가 청소년 문제 극복을 위한 탁월한 방법을 제시했다.

“집 나온 청소년을 돌보는 것은 함께 밥 먹고, 울고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 양떼

를 먹이십시오”

“교회와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

박은조 목사(은혜 샘물교회)는 교회와 예수님을 주제로 희망을 노래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교회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목사는 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던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다섯 명의 남편을 바꾼 여성이 사람들을 피해 우물가에 앉아 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감형 여성의 변화된 사례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박 목사의 메시지는 하나였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다. 자녀문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라고 강조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들이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천종호 판사(부산지방법원)는 기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련 통계를 보여줬다.

“우리나라 기출 청소년은 20만 명이고, 학업중도 탈락자도 약 7만 5천명이나 됩니다. 81%나 되는 청소년들이 학교 제도상의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만을 위한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70%가 학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집단을 형성해 살고 있는 일명 ‘가출패’ 과 거리의 청소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절도, 강도, 사기, 성매매 등 범죄를 일삼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줬다. 소년원에서 나와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은 67%나 된다고 지적했다.

천 판사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는 2010년부터 경남, 창원, 대전 등지에 ‘청소년 회복센터’를 세웠다. 사법형 그룹홈을 만든 것이다. 대전 청소년 회복센터는 목회자 부부와 함께 섬기고 있다. 그곳에서 2013년에만 10명의 아이들이 사례를 받았다고 한다.

천 판사는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열악한 환경과 혐오감이 청소년들을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대안 가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가와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했다.

“마리아를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 없다”

마리아행전 ‘하나님의 소원’ 첫 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 바하의 마리아찬가 1악장이 울려 퍼졌다.

이덕주 교수(감리교 신학대)가 무대에 올라 바하의 마리아찬가를 설명했다.

“마리아는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흥해를 지나 사흘을 굶었던 백성들은 마리아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다.”

마리아찬가는 최초의 여성 선지자 마리아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노래한 곡이다. 예수의 제자를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도 빼놓을 수 없다. 그만큼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들의 역할이 컸다. 마리아들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 없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마리아가 있었다. 조선 말기 1872년 2월, “부모와 함께 살면 단명할 것이라”는 점괘를 받아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매례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MFScranton 선교사에게 입양됐다. ‘Mary’라는 세례명을 한자로 음역한 이름이 ‘매례’다. 여는 성이다. 그녀는 성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여씨, 황씨, 양씨를 거쳐 결국 여씨를 선택했다. 여매례는 간호사 겸 전도사로 활동했다. 진명 여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한국편 마리아찬가도 나왔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노래를 배운 김양숙 집사가 예수전을 노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편 마리아찬가다.





2015 마리아행전에서 순백의 마리아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기도하는, 열방 품는, 생명을 양육하는 여성”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는 기도하는 순백의 마리아들을 기도의 어머니로 초대했다.

이 목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브라함과 사리를 이야기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마리아들에게 “기도하는 여성, 열방을 품는 여성, 한 생명을 양육하는 여성을 통해 역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했다. “아브람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고난과 불행이 있었고,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와 한 사람의 헌신이 열방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만나지 못하는 다음세대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다.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꿈이 있어 행복한 연어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다를 거슬러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후대에 전할 사명이 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 행복한 연어입니다”

강디모데 형제는 함경남도 단천이 고향이다. 지금은 남한에 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다. 강디모데 형제는 북한에서 살면서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는 탈북자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는 “북한사람들이 굶어죽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예

12가지 기도제목

-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 하나님 대신 인간 중심이 된 죄인을 위해 기도하자.
-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 영적 지도자의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자.
- 북한의 독재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 복음을 전할 나를 위해 기도하자.
- 북한 사역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한반도에 핵과 전쟁을 위해 기도하자.
- 북한 지하교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자.
- 인신매매, 탈북 구출을 위해 기도하자.
-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음의 영적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 한반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북한에서도 선포되길 기도하자.

수임을 모르는 것이 더 아프다”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 달라

하광민 목사(생명나래교회)가 무대에 올랐다. 강의 주제는 통일과 탈북민이었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고, 탈북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한국에 와 있는 2만8천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의 실정과 북한에 대해 잘 알아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광민 목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탈북민들에게 더 높다고 했다.

탈북자들을 섬기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언어와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목사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선교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꿈도 이야기했다.

“통일이 되면 반도국가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대륙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랍과 이슬람을 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 목사는 또 “여성들이 민족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 인터뷰**마리아행전은 영적인 약이다**

“마리아행전은 영적인 약이고, 회복의 장소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

/ 삼시아 선교사(우즈베키스탄)

믿음의 선배들 기억에 남아

“실제적인 한국 선교사를 다뤘다. 여메레스 교사와 같은 실존 인물들의 삶이 도전이 되었다. 믿음의 선배들과 이장아 사모의 강의에 감동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 김수선 선교사(니카라과) TIM 선교회

한영훈 살리는데 앞장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면서 내 자녀만 챙겼던 모습을 회개했다. 앞으로 눈을 더 크게 뜨고 한영훈을 살리는데 앞장설 것이다.”

/ 송경옥 권사(중종로공동체)

회개했다

“결혼하기 전까지 차세대를 섬겼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부터 내 아이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다. 집회를 통해 그 모습을 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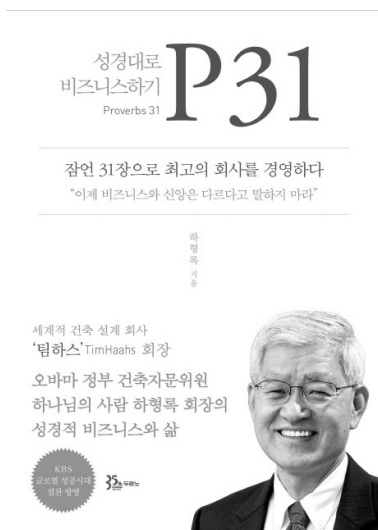
/ 박은경 성도(뮤지컬 찬양팀)



두란노 신간 소개

크리스천 모델로 우뚝 서기까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하형록 지음 | 두란노 | 12,000원



젊은 시절 성공만을 위해 달리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두 번의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TimHaahs)의 회장이자 미국 오바마 정부 건축자문위원인 하형록 회장이다. 그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란 듯이 증명한 크리스천 모델이다.

그는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열세 살까지 부산 한센 병 환자촌에서 살았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필라델피아로 갈 수 있었다. 명문 유전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미국의 유명 건축 설계회사에 들어갔다. 스물아홉 살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중역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왔다.

1991년 10월,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는 심실 빈맥으로 의식을 잃었다.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뛰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 서른세 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처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심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잠언 31장(Proverbs 31)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기업 '팀하스(TimHaahs)'를 시작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훈을 내걸고 성경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성경 말씀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크리스천 모델로 우뚝 섰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팀하스'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 중 하나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KBS 프로그램 '글로벌 성공시대'에 방영되기도 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은 하형록 회장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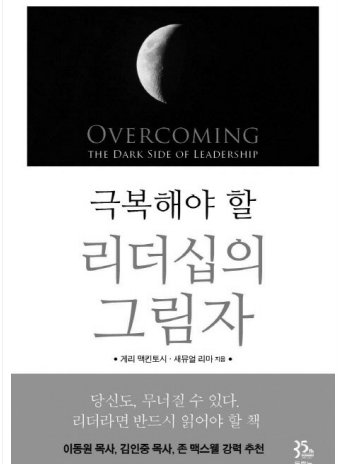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극복해야 할 리더십의 그림자〉
게리 맥킨토시, 새뮤얼 리마 지음/두란노/12,000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참다운 리더십 부재를 통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실족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교계의 뜨거운 감자다.

교회 리더 코칭 전문사역자 게리 맥킨토시와 새뮤얼 리마 박사는 거룩한 복음을 부르짖던 영적 리더들이 성직 타락, 재정 횡령, 사기 등으로 속절없이 넘어지는 이유를 '인간 안에서 자라난 그림자(dark side)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책에서는 그 그림자를 이야기한다. 그림자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내적 충동과 강박 관념, 인성의 역기능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저자는 그 어떤 리더도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부분 그것을 포장하거나 숨기고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에서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그림자의 5가지 유형을 정의하고, 리더가 자기 그림자를 정직하게 다루고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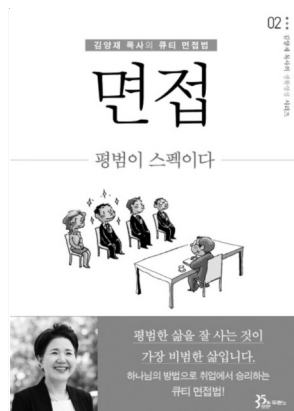


지혜롭고 확실한 성경적 면접 노하우

〈면접〉
김양재 지음/두란노/10,000원

김양재 목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법을 공개했다. 이 책에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다보니 입시와 취업에 성공한 평범한 이들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 지혜롭고 확실한 성경적 면접 노하우도 알려준다.

김양재 목사가 제안하는 큐티 면접법은 이렇다. 첫째, 솔직하게 답변하라. 둘째,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라. 셋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나타내라. 우리들교회에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이 면접법으로 입시와 취업에 성공했다. 물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에 몰입해 오늘도 자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첫 독자인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특징과 내러티브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성경 속 주인공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러티브 문학은 기성전결의 흐름을 갖춘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성도들에게 익숙하고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이 책에는 설교가 18명의 내러티브 설교가 실려 있다. 각 편마다 설교 포인트와 해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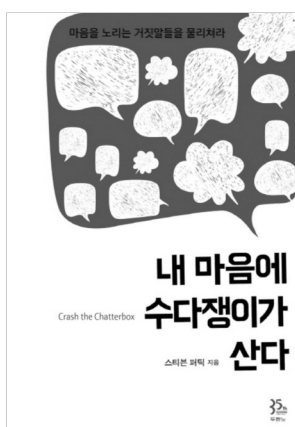
〈슬로, 바이블〉
말씀목회공동체 지음/두란노/15,000원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내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
스티븐 퍼틱 지음/두란노/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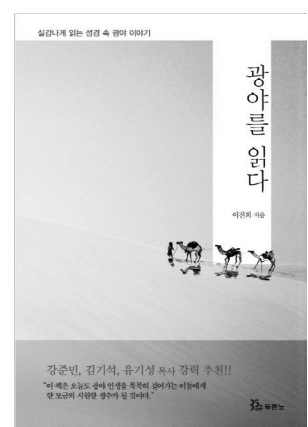
“성경은 사탄의 본성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 내가 떠들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은 사실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 준 거짓말이기 십상이다. 수다쟁이 사탄이 내 안에 불어넣는 부정적인 수다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그분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살렛의 엘리베이션교회 스티븐 퍼틱 목사가 신작을 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 자신감을 잃었거나 지치고 낙심한 이에게 비타민이 되어줄 책이다.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많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힘겹고, 위태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책에는 이진희 목사가 수차례에 걸쳐 광야를 답사하고 얻은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다.

그가 순례자들을 가이드하면서 발견한 성경의 광야,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조언한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지리적, 문화적으로 분석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줄 것이다.



〈광야를 읽다〉
이진희 지음/두란노/12,000원

광야에서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캄보디아의 결혼문화



신정빈 목사
(온누리M센터 캄보디아예배)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은 캄보디아를 건국한 크메르(Khmer) 왕자 프레아 통(Preah Thong)과 나가(Naga)의 공주 네악(Neang Neak)의 결혼식 설화에서 유래했다.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은 여러 가지 예식들로 이루어진다. 모든 예식은 캄보디아 고대 문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전통 노래를 함께 불러 그 의미를 설명한다. 결혼 시즌은 건기인 11월부터 4월 사이에 가장 많이 한다. 캄보디아 결혼식은 보통 3일 동안 진행되는 흥미로운 행사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동네에 있는 사원에 가서 인사를 한다. 그곳 토지신에게 결혼한다고 고하는 일종의 신고식이다. 하객들은 청첩장이 아니라 초대장을 받는데 초대장 없이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 초대장 봉투는 축의금을 넣는 용도로 사용된다. 모든 결혼식 비용은 신랑이 부담한다.

결혼식 날 신부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화려한 분홍색 꽃으로 장식한다. 이른 새벽부터 전통음악을 크게 틀어 온 동네 사람에게 결혼식을 알린다. 집 앞 골목에 텐트가 세워져 길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집마다 한 번씩은 열리는 행사이기에서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결혼식에는 악사를 불

러 하루 종일 연주하고, 만담가의 공연 등을 통해 결혼식 내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랑 가족들이 화려한 색깔의 전통의상을 입고 지참금 명목으로 고기와 야채, 과자와 떡, 열대 과일 등을 장바구니에 담아 신부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결혼식의 첫 순서는 절에서 모셔온 스님이 불경을 읽는 것이다. 이는 신랑 신부의 복을 빌고 죽은 조상신들에게 신랑신부의 결혼식을 알리는 의식이다. 신랑과 가족들은 신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신부가 나오면 준비한 꽃을 주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면 신랑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결혼반지를 교환한다. 신랑신부는 결혼예식 순서마다 보통 3~7명 정도 예복을 갈아입는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이 신랑신부의 머리를 자르는 예식도 한다. 가정생활에 불행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신부가 신랑의 발을 씻기고 결혼한 하객들이 신랑신부 주위에 둘러앉아 오른손으로 촛불을 돌려 건네며 신랑신부를 축복하기도 한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하객들이 신랑신부의 손목에 빨간 '축복의 끈'을 묶어주고 축의금을 주는 예식이다. 이때 장을 크게 울리면서 행복, 건강, 성공, 풍요,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 전통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야자꽃을 새로 탄생한 부부에게 던지며 신랑신부의 혼인을 선언한다. 그리고 나면 신랑이 신부의 스카프를 잡고 신부의 방으로 들어간다. 첫날밤에 신랑신부는 깊은 사랑에 대한 증거로 바나나를 서로 먹여 주는 것이 전통이다. 이는 새로운 커플의 행복과 자식을 많이 낳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다.

캄보디아는 오랜 외침과 전쟁, 내전 등을 겪으면

남자는 결혼 지참금, 여자는 생계 책임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

서 가부장적 문화와 가차관이 형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모계사회 성격이 강하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 어른에 대한 공경, 자기절제와 인내, 혈족관계 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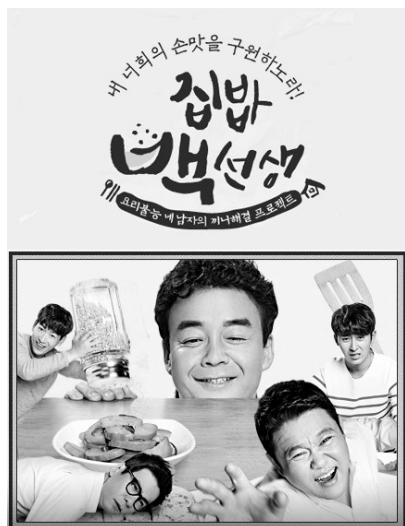
모권이 강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준비해야 한다. 대개 2~3천 달러가 필요하다. 상류층의 경우 1~3만 달러까지 지참금으로 쓰인다. 아직도 조혼의 풍습이 남아 있어 여성들은 대개 19세 이하, 남자는 24세에 결혼한다. 대부분 여자가 생계를 책임진다. 시골에서는 모계사회답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서 처가 식구를 위해 평생 일하면서 생활한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이주민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부모님께 허락 받아야 한다. 특히 어머니의 허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이웃리치 때마다 가정방문을 통해 형제자매들이 가족들의 핍박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들은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 부모님이 정해주는 신부와 결혼하는데 대부분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모권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아내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캄보디아 이주민 형제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목회칼럼 정성훈 목사(양재 중동부)

요리하는 남편, 행복한 식탁 차리는 아빠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다각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발전하고 있다. 개그 프로그램이나 토크쇼라는 장르를 넘어서었다. 다른 장르와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다. 요리 프로그램 하

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백종원이다. 텔런트 소유진의 남편으로 세간에 알려진 백종원은 요식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인이자 요리연구가다. 그는 요즘 공중파와 케이블 프로그램 여러 개를 진행하면서 '요리 예능'이라는 장르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푸근하게 요리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웰빙에 대한 갈망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 얻는 건강과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웰빙은 외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먹는 건강한 밥이 진짜 웰빙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고 있다.

둘째, 요리의 '요' 자도 모르는 네 명의 남자들이 요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혼생활 중인 텔런트 박정철, 거러기 남편 가수 윤상, 중년의 평범한 가장 김구라, 혼자 지취하는 청년 손호준이 출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의 하접한 요리 실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시대 남성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 모습이 웃음을 준다.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그들의 요리솜씨가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백종원이 요리의 '요' 자도 몰랐던 네 남자와 이 시대 남성들에게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다.

셋째, 백종원이다. 그는 정말 동네 아저씨 같다. 기업의 CEO라는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아저씨같이 포근하고 정감 있다. 사투리 섞인 말투와 윙트 있는 언변이 이 프로그램의 흥행 요소다.

'집밥 백선생'은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에 집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리에 서툰 남자들이 음식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요리 열풍'이 불고 있다. 아저씨 보면 남자로 살기 참 힘든 시대다. 경제활동을 통해 돈만 벌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났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십시오"(엡 5:25).

가정에서 남성들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 언제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아내를 섬기며,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남성들의 참된 리더십이다.

치열한 경쟁과 생존 속에서 사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요리는 미지의 세계이고, 타국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스포츠 중계나 뉴스만 보던 모습보다 훨씬 맛있을 것이다. 아빠가 만든 집밥으로 유대인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춘기 자녀들과도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내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멋진 크리스천 남편이라고 칭찬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단출하고 하접할지라도 아내와 아이들이 기뻐하는 집밥을 만드는 남성들이 되기를 바란다. 행복한 식탁이 될 것이다.

CGNTV <생명의 삶> QT간증 공모

8월 31일까지 원고 마감, A4 1~2장 분량
최우수상 아이패드 미니, 우수상 외식상품권 등

CGNTV가 <생명의 삶> QT간증을 공모한다.

CGNTV가 주최하는 <생명의 삶> QT간증 공모는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방법은 <생명의 삶> QT간증을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해 8월 31일까지 CGNTV 본사로 우편을 보내거나 홈페이지나 이메일(cgnqt@cgn-mail.net)을 이용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편집한 선물이 제공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아이패드 미니, 우수상 3명에게는 15만원 상당 외식상품권, 입상 5명에게는 성경책과 독서대, 큐티상 10명에게는 <생명의 삶> 6개월 정가구독권을 준다. 참가하는 성도들에게는 볼펜과 정해진 기념품이 증정된다. 결과는 9월 16일 CGNTV 홈



페이지에 게재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02-3275-9518, www.cgnvtnet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생명의 삶> QT간증



절망감이 소망과 기대로

/ 이효정 성도

2008년 10월 10일은 나에게 정말 아픈 날이다. 임신한지 9주 만에 둘째아이를 유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태아를 살려주시리라 믿었다.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진통을 참고 견뎠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는 내가 돌봐야 할 큰 아이도, 날 위로해주는 남편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아픔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산아가 그보다 더 낫다. 사산아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비록 사산아가 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는가?"(전 6:3-5).

이 말씀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동안 아이 둘을 더 낳았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배가 아프고 피가 비쳤던 기억이 있다. 그때마다 그때 잃어버린 아기를 기억하며 혼자 마음을 다독였다. 2년 전부터는 그날의 기억을 잊었다.

그런데 2014년 10월 10일 하나님은 나에게 6년 전의 아픔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 아기가 지금 주와 함께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잃어버렸던 아기가 평안히 잘 지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6년 전 병실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소망과 기대로 바뀌었다.

러빙유 청년벤처대회 워크숍 열려

사회선교, 크리스천CEO포럼 주최, 19개 팀 참석

지난 20일(토)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서 '2015 러빙유(Loving U) 청년벤처대회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사회선교본부와 크리스천 CEO포럼이 손을 잡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과 본선대회 준비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했다.

러빙유 청년벤처대회에는 50팀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19팀이 선정돼 1차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배홍일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마 20:1-7)'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배목사는 "예수님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하신 것처럼 러빙유 청년벤처대회에 지원한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대표의 '크라우드펀딩 소개 및



활용법', 김상현 국내떡볶이 대표의 '나의 창업 이야기', 유인철 마젤란기술투자 상무의 '창업을 통한 세상의 치유' 특강이 이어졌다. MYSC팀의 사회화한 워크숍과 본선대회 발표준비를 위한 워크숍도 진행됐다.

러빙유 청년벤처대회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건강한 창업을 꿈꾸는 청년

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7월 18일(토)에는 2차 워크숍이 열린다. 이날 각 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ccforum@naver.com 02-570-7094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이것이 바로 스포츠선교다!

공사랑, 온누리M센터 지체들에게 축구 가르치기로

양재 온누리교회 스포츠선교팀 '공사랑'이 온누리M센터 소속 캄보디아 지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지난 21일 스포츠선교팀 공사랑은 최근 안산시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 축구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온누리M센터 소속 캄보디아 지체들로부터 코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

앞으로 공사랑은 이상훈 감독을 중심으로 격주에 한번 캄보디아 지체들에게 축구기술을 전수한다. 이것은 단

순한 스포츠 교류가 아니다. 고국을 떠나 외롭게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지체들을 격려하고 복음도 전하는 은혜의場이다. 스포츠선교팀 공사랑은 지난 2008년 조직되었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안남고등학교에 모여 친교를 나누고 있다.

온누리M센터를 비롯해 서산 보육원, 새터민 지원, 해외 아웃리치에서 스포츠선교를 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장기선교사(OSOM 25기) 훈련생 모집

Acts29 비전발리지에서 장기선교사 훈련(OSOM 2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기선교사 훈련은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24일까지다. Acts29 비전발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

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1일에 통보된다.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8월 8일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면접이 실시된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문의: 031-331-8182

축하합니다

6월 세례자

■서빙고	▷유아	이동희 신가희	김주영 811212	신우성진강진영A	권용운 양진원	오예담 141019	〈대청〉
곽가은 921103	박노아 130716	임은유 130622		성시은 140125	김로아 140218	오세준 정장미	
김주연 740210	박종현 이하나	임대원 신리현	■양재	성택용 김해진	김도형 류민정		■허브
조하늘 710728	강주하 140412	조소빈 130709	김창연 830804	신유건 140624	임가은 131017		최지원 920406
최민욱 730701	강찬구 박보은	조한무 정유진	유인석 651111	신창우 하선영	임성진 박정화	▷입교	▷입교
표미연 770429	김도준 140710	장영민 140214	이병율 651009	윤예현 130719	최진결 140703	나하은 951008	나하은 951008
장호철 850209	김형진 김묘희	장재훈 조아라	▷입교	윤은진 김은선	최원주 최선영	신효은 950929	신효은 950929
권효진 850901	박이현 130809	황도훈 140922	오주영 940107	전하람 140810		백종수 김선미	
박지연 870131	박희열 유정은	황진수 남다린	오선영 950613	전 원 차미라	■수원		■W
윤명자 581018	박한별 141127	황현서 150213	정승혜 890227	정예준 140121	▷유아		▷유아
윤지은 830227	박재순 황연정	황현규 이승열	▷유아	정신영 이은경	김유준 130719	강태길 770129	박열국 140622
이윤혜 710113	신하람 140102		고건우 140211	정예하 140321	김동욱 최윤선	한선경 801230	박관수 양미화
주재연 840522	신현용 김은희	■특별한초대	고명진 최은영	정재륜 손 숙	박건우 130507	김건우 850402	이재연 141025
김은혜 961205	원아영 140822	김은정 810722	박현준 131127		박찬현 한정화		이효영 안지연
▷입교	원성빈 박지연	김윤정 861215	박영재 노성지	■부천	박예람 121130		
구교훈 900519	이다은 131102	최창균 810329	신우예을 140131	권라아 140616	박민규 신윤선		

여름 아웃리치 전도 특강 실시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본격적인 여름 아웃리치 시즌을 맞아 전도 특강을 실시한다. 7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전도 특강 당일 현장에 서 받는다.

문의: 문쌍찬 팀장 010-4572-7373

알립니다

온누리신문에서 2015년 여름 아웃리치 후기를 받습니다. 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의료선교팀 등 국내외 아웃리치를 다녀온 성도들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 A4 1장, 글자크기 10

내용: 아웃리치 간증 또는 후기, 아웃

리치 현장사진, 글쓴이 사진

보내실 곳: onnuriweekly@gmail.com

문의: 02-3215-3196

■ 6월 세례간증



/ 최민옥 성도

그 갈등이 해소되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가정보다 일을 더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셨다. 무능력하게 누워계시거나 화를 많이 내셨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에 매진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다.

대학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 부모님을 떠나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따뜻하고, 자상했다. 시댁식구들도 단란했다. 나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물질이 풍부하고, 배움이 많아도 허전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궁금했다. 고전 인문학이나 인생에 대한 책을 읽어도 인생의 의미와 삶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성경을 읽게 되었다. 참 재미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남편과 몇 년간 떨어져 지내다 아이들이 4살 때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되었다. 평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나는 교만해져 갔다. 그런 생활을 하던 나에게 어느 자매님이 교회에 나갈 것을 권하셨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 자매님은 나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참 많은 것을 베푸셨

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아들이 7살 때 우리 가족은 한국에 오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시댁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남편이 하던 일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삶의 위기였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급기야 2011년에는 암이라는 병까지 얻었다. 온갖 스트레스가 문제였다.

수술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이 하필 아들의 생일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교만한 삶을 사는 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병문안을 오신 자매님과 자매님의 동생분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을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나는 인생의 참 행복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돈, 세상의 칭찬,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등이 해소되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 자만하고 이종적이었던 성격과 생활습관도 점점 나아졌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들도 순종적인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죄를 용서해주셨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다. 나는 이제 남편과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친히 세우실 것을 믿는다.

■ 전도폭발 4단계 훈련을 마치고



/ 제인현 성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그 시간이 어느새 지났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도 겪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훈련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먼저 훈련을 받으신 선배들이 다음 단계 수업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단계도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달콤한 감언이설이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선배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강의의 깊이가 더해졌다. 전도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수업들이었다. 특히 4단계 수업에서는 먼저 나를 바라보게 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어버렸던 내 안의 쓴 뿌리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위로와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가 느낀 확신을 전도대상자를 만났을 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함께 훈련을 받은 지체들이 있어 행복했다. 해맑게 말씀하시는 지체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많고, 자녀들 모두 선교사로

파송한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과 같이 은조에서 활동할 수 있어 행복했다.

팀 전도를 하면서 이스라엘로 파송을 앞둔 선교사 부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그들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인생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전해야만 부모님 세대들이 공감하고,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다. 같은 조에서 활동했던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도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다.

전도폭발에서 만난 인연으로 함께 성경통독을 하는 지체도 생겼다. 죽기 전까지 평생 성경을 함께 읽자고 하신 분도 있다.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 준 전도폭발 훈련이 있음에 감사하다. 묵묵히 섬겨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팀장님, 모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준 남편에게도 감사하다.

■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 김지은 자매

두 번의 용서 그리고 변화

나는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빠는 매우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엄마가 사정을 해야 겨우 교회에 한 번씩 왔다. 아빠는 엄마 외에 다른 여자가 세 명이 나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아빠와 같이 있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나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스스로를 가둬놓았다. 아빠는 술을 마시면 감정조절이 안됐다. 우리에게 손찌검을 한 적도, 물건을 집어 던진 적도, 테이블을 엮어 우리와 편이 거실을 뒤덮은 적도 있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 아빠는 괴물이자 악마였기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프리덤스쿨을 신청하면서 고대했다. 과연 이 아픔을 조원들과 나눌 수 있을까. 격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프리덤스쿨 수련회 날 나는 모든 것을 나눴고, 조장님과 조원들에게 아빠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에 대한 기도를 했다. 아빠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보았고, 나도 함께 울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 의지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감동을 주셨기에 가능했다.

아빠를 용서하고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자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번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용서였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모든 열정을 쏟았다. 교회에 나의 돌과구였다. 그러다보니 교회에서 나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얼마 전 성가대 연습을 할 때였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했다. 평소에도 나를 질책하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노골적이었다. 그날따라 감정조절이 되지 않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예배자인 나를 그것도 예배 직전에 그렇게 지적하고, 공격했다는 것에 분노가 들끓었다. 그 집사님이 너무나 미웠다. 그날 무대에서 내려와서 프리덤스쿨에서 배운 4R(회개, 용서, 정결, 대적) 기도를 했다. 아빠에 대한 용서 기도가 나오듯 그 집사님에 대한 용서 기도가 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마음이 풀려졌듯 나를 모욕했던 그분에 대한 마음도 풀려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프리덤스쿨을 통해 많은 기도응답과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하트스쿨을 마치며



/ 이효진 성도

부모가 회복되면 아이는 절로 행복해진다

하트스쿨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우리 가정의 하트스쿨에 참여했다는 것 또한 기적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교회 소리만 들어도 겁을 먹고 뒷걸음치는 아들을 데리고 하트스쿨에 참가했다. 아들은 하트스쿨에 참가하면서 교회가 재미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유년부에 등록하고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가는 날로 알게 되었다. 남편은 아직 기도가 필요하지만 집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린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예배드리려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올해 5월이 결혼 10주년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혼 10주년 선물은 남편에게 줄 이혼 서류라고 생각했다. 우울한 생활에서 헤어 나오질 못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7살에 이혼 하셨다. 나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아빠와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이 박힌 할머니, 무서운 고모 밑에서 자랐다. 엄마가 없어서 그런 애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철은 일찍 들었지만 엄마의 사랑이 늘 그리웠다. 그 빈자리를 남편에게서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상과 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남편은 나보다 놀이문화, 스포츠, 회식,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았다. 아들과는 대화가 없었다. 이혼을 생각하다 보니 경제적 자립이 필요했다. 다녔던 회사에 재입사하고 일에 몰두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회 생활이 좋았다. 아들은 가기 싫은 어린이집에 등 떠밀려 가다 보니 적응을 하지 못했다. 아침마다 우는 아이를 떼어놓기를 3년 동안이나 했다. 그사이 아들에게 부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들은 나를 원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아들을 느끼고 예민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키우기 힘들다고만 생각했다. 아들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떼졌다. 엄마한테 집착하는 성향 때문인 줄 알고만 있었지 나의 불행이 아들에게 전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트스쿨에서 들은 강의는 나와 우리 가정에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상처를 닦아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은 이해로, 미움은 인정해줌으로, 비난은 칭찬으로 바뀌면서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다.

부모가 회복되면 아이가 절로 행복한 아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피난처에서의 상념

6월의 뜨거운 어느 날.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피난처를 찾아갔다. 이 피난처는 한국으로 표류한 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NGO단체다. 한국에도 난민이 있냐는 질문이 자연스레 나올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세계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2015년까지 490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난민은 10,760명이다. 그중에 490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니 수용율이 5%도 채 안 된다. 물론 좁은 한반도에 오는 난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도 한때 조국을 잃고 중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를 잃고 내전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강도 만난 이웃들을 문전박대 하면 안 되는 이유다.

난민들은 재개발지역 판자촌에 살고 있었다. 빛도 잘 안 들어오는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는데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생계지원이 거의 없다. 취업도 금지되어 있다.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본국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도망 나온 이들이 어디서 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피난처는 이런 문제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간혹 불법체류자와 난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민은 불법체류자와 엄연히 다르다. 난민들은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정서적으로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피난처를 설립한 이호택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다가 그 속에 섞여 있는 난민들을 발견하고 난민사역을 시작했다. 그의 아내인 신혼여행으로 간 중국에서 탈북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목격하고 탈북자사역에 뛰어

들었다. 지금은 여명학교(탈북자 대안학교) 교감으로 섬기고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감동받은 7명의 간사들과 협력 변호사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난민사역은 정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사역이라는 느낌이 든다. 신앙의 인물들도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난민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급박하고 절실한 사역이다.

그 곳에서 이집트 난민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그분이 땀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물 한잔을 대접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 읽은 것 같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사 19:19-25)이라는 나의 말에 감동을 받고 커피까지 타 주었다. 난민이 대접해 준 물과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따스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따스한 말 한마디와 물 한잔이 사람의 영혼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신세지만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정치가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데 간사님이 말했다. “이곳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2년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사말을 남기고 산동네를 걸어 내려왔다. 날씨는 더웠지만 마음은 쾌적했다. 피난처 벽에 쓰여 있는 성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권사칼럼 박인숙 권사(온누리 전도학교)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온누리교회 전도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5분전도 툴(Tool)은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돈, 자녀교육, 건강, 취업 문제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역설적으로 돈, 권력, 명예가 많고 높을수록 초조해한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 때문이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흔히들 복음은 만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나부터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그 래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 차고 넘치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또 전도지는 시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표준이 없고 자신이 옳고 좋다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취향대로 살면서 간섭하지 말자는 포스트모던시대다. 이런 시대일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많다. 영적인 것을 더욱 갈망하는 시대라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영적세계에 심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대우품을 찾는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것은 듣지 않으려 한다. 전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접촉점을 찾아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어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5분은 커녕 1분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보다 앞서 마음의 문을 여는 접촉점

찾기가 중요하다. 그들의 관심사를 알고 공통분모를 찾아 접근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롭고 속마음을 알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 마음을 읽어 준다면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기쁨 때나 힘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리를 놓아야 한다. 특히 사람들은 이름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때가 최적의 기회다. 병원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중증환자들이 병과 죽음을 목상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때 “병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

전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해 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읽어 주면 더 더욱 쉽고 좋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기 입원한 중년 남성들은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동경기에 하프타임이 있듯이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지요. 이 병상이 하프타임인 것 같습니다”하면서 접촉점을 찾으려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다. 뇌졸중, 치매 등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백만 원 짜리 수표가 조금 구겨졌다고 만원이 되지는 않듯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면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 들인다. 이처럼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 접촉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도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드시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접촉점을 찾아, 그러면 한국교회의 밝은 희망이 보인다.



장로칼럼 임현태 장로(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는 직경 25미터, 높이 35미터까지 크게 자란다.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자라기 때문이다. 개인의 영적 성장의 비밀도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가지를 치듯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 염려, 두려움, 자존심, 권위주의, 이기주의 등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도, 감사, 기쁨, 순종 등이다. 이것들은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다. 많이 섭취할수록 좋다.

새벽마다 철새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저쪽 산에서 이쪽 강으로 날아온다.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기 위해 어미 새들이 새끼들에게 열심히 날갯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때로는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 가르치기도 한다. 차츰 날아가는 철새의 숫자가 많아진다. 열 마리, 열다섯 마리로 규모가 커진다. 드디어 백 마리가 넘

는 새들이 드넓은 강 상공에서 거대한 V자 대열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자기 자리를 찾느라 우왕좌왕 하더니 이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앞에서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는 새들이 지치면 중간에 있던 새들과 자리를 바꾼다. 마치 수북이 쌓인 눈 위를 누군가 밟고 가면 그 발자국을 뒤 따라 가는 사람은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것과 흡사하다. 앞에서 열심히 날갯짓하는 새들의 뒤를 따라가는 무리들은 날갯짓을 멈춰도 힘 들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공동체의 영적 원리는 철새들의 양육과 훈련, 교제와 화합, 일치와 배려, 그리고 사랑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귀한 예배당 터를 주셨다.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차세

대와 대학청년들을 향한 꿈,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인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회선교, 통일을 대비한 탈북민선교가 바로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사명이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부지에 교회를 짓고, 입당예배를 드릴 것이다. 인천 온누리교회와 함께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자연에서 배우는 영적 원리처럼 개인적으로는 영적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것이다. 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것이다. 공동체적으로는 모두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꿈과 비전을 향해 더 높게, 더 멀리, 날아야 한다. 화합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다른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여학생에게만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학생은 육상선수였는데 그 여학생을 지도한 교사는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육상경기를 할 때처럼 힘껏 응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힘이 그 여학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는데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부여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책망하고, 징벌하는 분으로 알면 길으로 행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은혜, 지지와 격려를 경험한 성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결과이자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룹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3-6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은혜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자

백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 늘 우리 편에서서 격려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체험할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느냐 여부가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지킬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9-11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미움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사랑보다 미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미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넘어뜨립니다. 미움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

리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운데 거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은 옛적부터 주어진 계명입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레 19:18).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결과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의무감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용서의 체험, 우리 곁에 계시는 변호사의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룹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요일 2:5).

내 마음에서 미움이 제거 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줍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용서,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5 : 이세벨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남자였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가 웬만한 남자 왕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언급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다. 이세벨은 열왕기에서 19차례 나오는데, 시돈(페니키아)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다. Brenner에 따르면 엣바알(비알)이 함께한다란 뜻은 왕이 자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다. 왕의 딸도 ‘비알 멜 카르트’를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었다. 즉 엣바알과 이세벨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모두를 거머쥔 자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다. 성경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비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한다(왕상 16:31). 열왕기에서 ‘비알’이 처음 언급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즉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그 때다.

이세벨은 독실한 비알 종교 제사장답게 자신의 종교를 북 이스라엘로 확대한다. 열왕기상 18:19에 따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비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다. 비알 종교 지도자 850명을 세우고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이다. 이들 비알 선지자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비알 종교가 성행했고, 미술이 행해졌다(왕하 9:22).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살롬’이 사라졌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예후야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왕하 9:22)고 답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세벨은 잔인한 여자였다. 이세벨은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였다. 씨를 말렸다. 엘리야가 주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에 맞서 엘리야는 비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저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거둔다. 이세벨과 엘리야의 싸움은 그야말로 파비린내 나는 살벌하고도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다.

이세벨은 표독스러운 여자였다. 자신의 종교적 심복들을 죽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복수를 선포한다. 이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던가? 이세벨의 기세에 눌린 것이다. 또 이세벨은 간교한 여자였다. 나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 밤도 먹지 않고 빠져있는 남편을 보고 음모를 꾸민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하여 나뭇이 사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쓸 만큼 이세벨은 정치적 실세였던 것이다. 그 편지는 나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뭇을 돌로 쳐 죽이라는 살해 지시서였다. 모든 것은 착착 진행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던 나뭇은 무참히 죽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셨다. 어찌보면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사주에 놀아난 철딱서니 없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왕상 21:25)고 평가한다. 비록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판 것은 아합 본인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을 죽게 하셨다.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도 심판 대상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대행자로 ‘예후’를 세우셔서 요람(=여호

람)과 70명의 아들 모두를 처단하셨다. 특히 이세벨의 죽음은 가장 참혹했다. 그녀의 시체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 살을 먹어 해골과 손과 발만 남게 됐고, 남은 시신마저 밭의 거름(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신약에서도 이세벨은 저주받은 이름이요, 가장 경멸을 받는 이름이 되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이세벨이었다.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라기보다는 북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과 같이 교인들을 꾀어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르다. 이 무명의 여인의 출신지인 ‘수로보니게’(Syro-Phoenicia)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애원하는 이 여인을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개’라고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으셨다. ‘개’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해 부르는 호칭이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개’를 페니키아 출신 이세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기도 한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세벨이란 이름은 추악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믿음의 여인이었다. 영원히 저주받을 이세벨의 후손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지나주 칼럼은 박철현 ‘하늘의 창 두 차원의 세계, 두 개의 시각’, 《하유주석 열왕기하》를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